Q



대한항공 임동혁, 교체투입 후 23득점..."제자리 찾는 중"

송고시간 | 2021-12-24 22:24





















임순현 기자 기자페이지



공격에 성공한 뒤 포효하는 대한항공 임동혁

[한국배구연맹(KOVO)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프로배구 남자부 대한항공의 임동혁(22)은 팀이 득점에 성공할 때마다 거침없는 세리 머니로 팀 분위기를 이끄는 선수다.

오른쪽 공격수라는 이유로 포지션이 겹치는 외국인 선수들에게 밀려 주로 교체 선수로 활약하고 있지만, 주전 선수에 뒤지지 않는 활약으로 팀 승리에 기여하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팀 에이스 정지석이 불미스러운 일로 이탈하면서 1·2라운드에서는 왼쪽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꿔 잠시 주전으로 출전 했지만, 정지석이 3라운드에서 돌아온 뒤로는 다시 교체 선수들이 대기하는 웜업 존으로 돌아갔다.



24일 정규시즌 전반기 한국전력과의 마지막 경기에서도 임동혁은 웜업 존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외국인 선수 링컨 윌 리엄스(등록명 링컨)가 팀 선배 정지석과 호흡을 맞추며 공격을 이끄는 모습을 부럽게 바라봐야만 했다.

그런 그에게 1세트부터 기회가 찾아왔다. 링컨이 4개의 범실을 범하며 부진하자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은 15-17 상황에서 임동 혁을 투입했다.

임동혁은 감독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3개의 오픈 공격을 연 거푸 성공시키며 한국전력과의 점수 차를 2점으로 유지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비록 1세트를 한국전력에 내줬지만, 임동혁의 활약은 2세트부 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세트 초반인 1-2 상황에서 링컨 대신 투입된 임동혁은 이후 교체 없이 혼자서 7점을 내며 정지석과 함께 팀 공격을 이끌었다.

결국 24-15 세트포인트에서 임동혁이 마지막 공격을 성공시키며 2세트를 가져왔다. 이날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 바꾸는 점수였다.

임동혁은 3세트부터는 아예 링컨 대신 선발로 투입됐다.

링컨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틸리카이넨 감독은 임동혁에게 오른쪽 공격을 전담시켰다.

감독의 믿음에 기세가 오른 임동혁은 3세트에서도 5점을 내며 팀이 세트를 가져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어 4세트에서는 전·후위를 가리지 않고 혼자서 8점을 내며 선배 정지석에 버금가는 활약을 펼쳤다.

이날 대한항공은 23득점을 기록한 임동혁의 활약에 힘입어 난적 한국전력에 3-1 역전승을 거두며 정규시즌 전반기를 1위로 마무리했다.

경기 뒤 틸리카이넨 감독은 "1세트에서 리시브가 흔들려 위기가 있었지만 거기서 변화를 가져온 선수가 임동혁이었다"면서 "워낙 연습을 열심히 하는 선수라 링컨 대신 투입했다"고 칭찬했다.

틸리카이넨 감독은 경기전 인터뷰에서도 가장 기량이 발전한 선수로 임동혁을 꼽으며 그에 대한 믿음을 보였었다.

임동혁도 감독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다. 비록 웜업 존에서 경기를 시작해야 하는 교체 선수지만 언제나 활발하게 팀 응 원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임동혁은 "웜업 존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것이 솔직히 기분은 좋지 않다. 코트에서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뿐"이라면 서 "외국인 선수 링컨이 잘해서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대신 들어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서 기분 좋다. 지금 제자리를 찾아 가는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hyun@yna.co.kr



프로배구 대한항공, 한국전력에 시즌 첫 승...1위로 전반기 마쳐

프로배구 대한항공, KB손보 7연승 저지...1위 수성

프로배구 대한항공, '더블 해머' 버리고 '정지석-링컨' 체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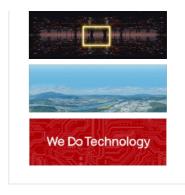
남자 배구 대한항공, 우리카드 완파하고 6위서 2위로 점프(종합)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24 22:24 송고

#대한항공 #임동혁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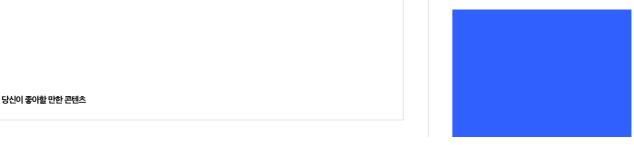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나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곡시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든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_____ 마스크만 빼고...'사회적 거리두기' 2년1개월 만에 사라지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45 ^{찰에 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ഈ 66 안 맞아"(종합)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61 대병원 자원봉사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 56 동재개 예열?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 40 힐예정"

뭐하고 놀까? ## 😛 →



유튜브채널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별뉴스 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시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 앱
 보다시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모맥스 한민족센터 K컬쳐기확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90.1229 | 발행일자 199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v